

강원지역 불교문화재

국보·보물지정 잇따라

민통선을 비롯 군사보호시설이 타지 역보다 많아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강원도내의 불교문화재들이 잇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강원문화권 규명을 위한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강원도의 불교문화재는 올해들어 등 해 삼화사 3층석탑을 비롯 인제 한계사 지 남·북3층석탑 등 3건이 보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보수과정 중 명문이 발견돼 학계를 놀라게 한 삼화사 철불은 국보지정 심의를 받고 있다. 또 원주 소초전 마애여래좌상 등 원주지역 불상 5건을 비롯 태백 심원암 토제좌불상, 양구 삼곡사 목조삼존불 등 총 7건은 한꺼번에 도문화재 심의에 올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이 강원도내 불교문화재가 대거 문화재 지정에 받게 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재관계자와 향토사학자들이 적극 나섰다.

강원도는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도내 각 대학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 시군별 역사와 문화유적에 조사 정리, 향토문화재자료집 총21권의 <역

군사보호시설 묶어
오히려 원형보존
도·향토사학자들
지역자긍심 고취 적극

사와 문화유적)을 집대성했다. 올해부터는 문화유적에 대한 목록화 작업과 계통적 정리를 통해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보존대책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화재를 선별, 지정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책에 기재된 모든 도내 문화재분포상황을 2만5천분의 1지도에 상세히 표시한 <문화유적 분포지도>와 문화유적에 관한 특징과 가치 등을 보존대책과 함께 담은 <문화유적 원부>를 제작,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강원도 문화예술과 정연우씨는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건 사

실이지만 최근 확인된 바로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며 "철저한 현황 파악 및 연구를 통해 군사보호지역의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7년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홍성익씨는 <춘주문화> 12호(춘천문화원 권)에 '강원도의 지정 문화재급 불교문화재 조사보고'를 기고, 비지정 불교문화재 중 상당수가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훼손된 경우(인제 한계령 사지)가 있는가 하면 보고가 됐음에도 보존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원주 부흥사지 석탑재, 평창 대성리 석탑재)도 있다는 것. 대형회 동씨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부흥사지에 출어져 있는 석탑재는 올 4월에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고, 평창강에 빠져 유실위험이 있는 대성리 탑재는 평창군이 예산을 마련, 보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불심시심 <133>

기미 있어야 하늘 땅 근원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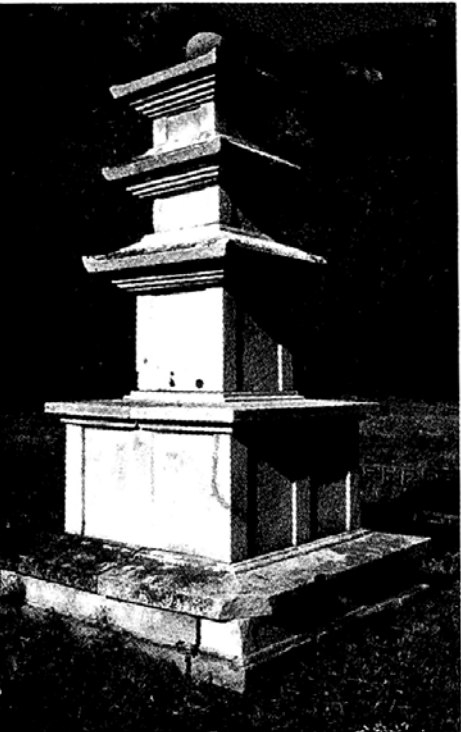
忘機天地本 (망기천지본) 기미마저 있어야 천지 근본 알지
終日坐漁磯 (종일좌어기) 종일토록 낚시터에 앉아 있다
山影孤帆去 (산영고법거) 산 그림자에 외로운 돛이 지나고
(신영고법거)
驚光晚浦歸 (경광완포귀) 갈매기 등빛 저문 개포로 돌아온다
(로광만포귀)
一身琴上老 (일신금상로) 이 한 몸 거문고 속에서 늙고
(일신금상로)
萬事酒中微 (만사주중미) 온갖 일 술안에서는 하찮다
(만사주중미)
淡淡煙蓑夢 (담담연사몽) 넘실넘실 어옹의 도롱이 꿈
(곤곤연사몽)
春江十里隴 (춘강十里隴) 봄 강에는 십리의 가랑비.
(춘강십리비)

월하대사의 '김씨의 강정에 서 쓰는(題金氏江淸)' 시이다. 강가의 저녁 풍경을 담박하게 읊었다. 천지자연의 근본 이치를 알려면, 오히려 자연이 이루어진 기미마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망기이다. 망이라 하여 나를 잊음이 귀하지만 나를 잊으려 하면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니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 나의 존재라는 그 동기마저 잊을때 그것을 잊음이라는 말로 대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고 있는 물의 있고 없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제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것이다. 이 망기를 배우려 낚시터에 앉아 있는 것이다.

수면에 떠있는 산그림자. 이것을 가리며 지나가는 배이니, 이 배는 산그림자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곧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산자락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역시 비논리의 논리이다. 갈매기 빛(驚光)이라 하였으니 석양을 등에 져 한 점의 빛으로 보이는 갈매기다. 시어로서 묘한 표현이다. 이 한 점의 빛이 저녁 노을 띠고 포구로 돌아온다. 이것이 강정의 전체적 풍경이다. 강이, 냇이나 길이, 또는 평방이나 장단의 단위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시선 끝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외로운 돛이나 갈매기 날개로 이 질량적 공간을 여유롭게 포용한 것이다.

여기에 거문고 하나, 술 한 잔으로 작자의 심사를 모두 담은 것이다. 하루의 어떤 한 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로 정착한 것이다. 여기에 서 '늙다(老)'의 한 글자가 갖는 시간의 확장, '작다(微)'로 맞물리는 사물 공간의 축소가 작자의 도량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장단 대소의 이 자리를 볼망의 비가 감싸주고 있다. 강정에서 바라보는 무한의 거리 저 십리의 시선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강원도 불교문화재가 잇따라 문화재지정을 받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4월 보물로 지정된 인제 한계사지 남3층석탑.



◇16일 공개된 금동아미타삼존불. 연꽃대좌위 삼존불 결가부좌 '독목'

고려불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영탑사 금동삼존불(보물 409호)에 비견될만한 금동아미타삼존불이 16일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고미술수집가 P씨가 소장하고 있는 이 삼존불은 높이 41cm로서 세 가닥의 줄기에 핀 연꽃대좌에 지장보살·아미타불·관음보살이 차례로 결가부좌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시기는 고려가원(元)나라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1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15세기 말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품"이라고 높게 평했다.

그러나 영탑사 것을 모본으로 하면서도 삼존의 배치나 상호(얼굴), 머리형태, 의습(衣褶), 띠매듭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기석 기자

호암미술관 '화엄경' 성암고서博 '다라니경'

현존 국내 최고의 사경으로 알려진 호암미술관 소장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755년)보다 먼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백지묵서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공개돼 연대 추정을 놓고 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관장 조병순)이 13일 공개한 사경은 총 길이 7m9cm, 폭 27cm로 앞부분에는 비단위에 금니로 그린 번상도(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압축 표현한 것)가 있고, 본문은 한지에 묵으로 글씨를 쓰고 있다.

25여년전 국내에서 이 다라니경을 구입, 고증작업을 벌여온 조병순관장은 세계최고의 목판본으로 알려진 석가탈출도 무구정광대다라니경보다 40여년 앞선 것(8세기 초반)것으로 추

국내 最古 사경은?

학계주장 양분

정하고 있다. 조판장이 주목하는 것은 번상도에 보이는 3층석탑, 육개석 모서리를 살짝 들어올린 수법이 백제 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개석 사방에 매달린 풍탁(風鐃)의 추도 93년 부여 능산리에서 금동용봉부레산향로와 함께 출토된 유물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성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지질, 글씨체 등과 함께 고문서의 중요한 편년 기준이 되는 무주제자(武周制字·촉천무후가 자의로 만들어 사용했던 글자)가 석가탑 다라니경에는 4종 10자가 나오는 데 비해 성암본에는 5종 15자가 나온다"며 "무주제자는 촉천무후가 죽은 뒤 사용이 금지된 만큼 이 글자체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으면서도 번상도와 본문의 보존상태가 너무 차이나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5년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이 다라니경을 확인한 바 있는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무주제자는 고려대장경 1권에만도 10종이상이 보인다"며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많고 적을 수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 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명대교수(동국대 미술학과)도 "번상도의 탐만 보더라도 기단부에 신중상이 새겨지는 것은 8세기 후반 이후부터이며, 탑의 1층탑신은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체갈름은 전형적인 고려탑 양식"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봉원사 영산재 시연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스님)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 특별 도량에서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30년만에 있는 생철 생전예수재로 봉행되며 송암 벽을 일음 스님 등 인간문화재 스님들과 준보유자 등 총 150명이 의식에 참여한다. (02)392-3007

불교문화재 사진전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운)는 28일까지 전주 전북불교회관 2층

문화 단신

에서 불교 문화재 사진전을 갖는다. 이번 사진전에는 관조 영담 선암 스님, 이병운 고준운 유정에 전향복

씨 등 회원들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0652)75-0108

국제조각 심포지엄

국제 조각가친선협회장 박찬갑씨가 주관하고 이천문화원(원장 이은구)이 주최하는 제1회 국제 조각심포지엄이 7월 10일부터 보름동안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일대에서 열린다.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각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박찬갑 강대철 씨를 비롯 영국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19개 나라 유명 조각가 25명이 참여한다.

불교성보문화연구소 설립

인사등에...성보조사·감정·전시등 추진

성보박물관의 건립준비에서부터 개관 및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할 연구소가 설립됐다.

김현정(상명대 강사) 정진희(수석사 성보박물관 개관준비 학예연구원)씨 등이 8일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연 불교성보문화연구소는 성보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방적인 조사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펼친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본·말사내 성보조사, 전시장 공, 전시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성보박물관의 전시기획안이 확정되면 효과적인 시공과 운영을 위해 전문 학예연구팀도 운영한다. 학예연구팀은 소장 성보

身士不二的의 企業 (株)興國農産

○ 신·토·불·이·경·신 ○
土種무엇 · 호두기름 · 土種홍화씨

배에 좋은 함양산 土種 홍화씨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정적지역인 지리산 자락 함양산 홍화씨 재배의 적지이며, 농촌지도소, 약초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한 품질의 홍화씨가 생산되어 소비자들에게 그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수입산도 넘쳐나고 수입산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 토종이라 깊게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무방 아무지역에서나 심었다고 모두 토종은 아닙니다.

옛날에 걸쳐 같은 토양과 토질·명에서 수확한 같은 씨앗으로 유행을 뿌려 심고 가꾼 함양산 홍화씨는 한알의 씨앗에도 농민의 명과 정성이 듬뿍 배어있는 토종 眞品 홍화씨입니다.

소비자가격 200g 씨앗 33,000원/250g 가루 43,000원

함양특산물 - 토종 홍화씨

군에서 적극 장려하여 수백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함양산 토종 홍화씨·보시부의 식품 원료사용 허가와 때를 맞추어 상품화시킨 토종 홍화씨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함양군수 **최정호**

土種무엇 600g = 소비자 45,000원

'무 하나 잘 먹으면 인삼 한뿌리 먹는 것 보다 낫다'고 알려진 만큼 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에는 포도당, 스크로브당과 같은 당분과 함께 신맛을 내는 산, 비타민 C, 그밖에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가래, 기침, 해소천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무는 해독작용이 현저하여 체내의 독성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각혈, 코피등과 두통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엇은 재래식 가마솥에 생강, 마늘을 깔고 무를 썰어 얹은 다음 약재를 넣고 찜쌀과 엿질감으로 식혀 3일을 고아 정성껏 만든 옛날 식품입니다.

◎ 사찰내 불교용품 판매점, 매점등에 전시판매하실분은 연락하세요.

호두기름 100ml = 소비자 27,000원

호두는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는 페, 기관지질환의 약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천식해소를 하는 환자에게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보혈작용, 눈이 맑아지며 피부는 윤곽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은행과 살구씨는 기침, 발열, 해소, 천식등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호두기름은 토종호두살을 큰술에 밥을 지어 뜸이 들 즈음에 집어넣어 2회를 찌고 말려서 살짝 볶은 은행과 살구씨를 혼합하여 기름을 낸 것입니다.

호두기름은 고사나 가수등의 성대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처 (무료전화)	전국 (080)064-1300
	서울 (080)070-1300
	광주·전남북 (080)085-1300
	대구·경북 (080)040-1300
	제주 (080)090-1300

건강한 農民의 郷土企業 ———
(株) 흥국농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19
전화 : (0597) 64-1300
FAX : (0597) 64-1304